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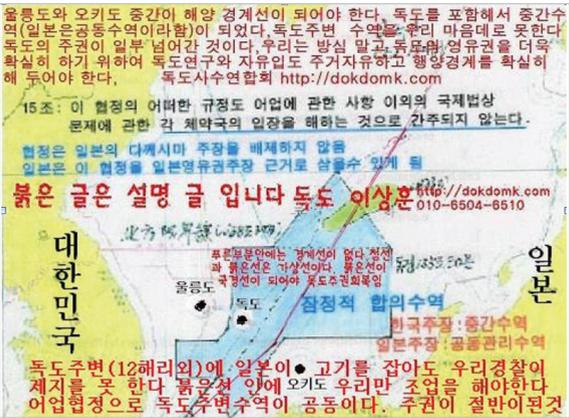
독도소식지 21호를 내면서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맞으면 ○ 틀리면 x 답을 생각하고 3면에

독도소식지는 일본의 독도침략을 막으려는 일념에서 만든 것입니다. 식민지 시대를 보낸 우리 민족이 그 역사를 알면서도 이기주의에 광배하여 남이 지켜주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또 식민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당신은 독도의 주인입니다.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전달합니다. 독도를 우리 모두 목숨 걸고 지켜야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후원금과 회원들의 회비로 만들었습니다.

독도 수역 바다도 독도다.



독도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에 조업을 하려면 일본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하루에 1번씩 조업한 량을 일본에 무전으로 신고를 하고 일본 배가 와서 확인하고 신고 량 보다 많으면 벌금을 매긴다고 한다. 독도바다는 우리바다인가? 일본바다인가? 독도바다가 한,일 공동수역 이면 절반을 빼앗긴 것 절반의 권리이다. 또 세계지도 대다수는 독도가



있을 자리에 다케시마로 표시되는 섬이 있다. 지도를 보는 이들은 독도를 일본의 섬으로 인식 할 것이다. 일본은 우리가 불법점거 했다고 소문내고 외국인들은 그 말을 믿고 나중에 국제재판을 한다면 세계인들이 우리 편을 들어 줄까요? 독도와 과학기지를 동해과학기지로 만들어 왜 서해에 이동을 했는지? 국민들이 홍보하는 것도 못 하게 하는 경찰과 김해국제공항 관리팀은 독도가 잘못 된다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독도운동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독도개발은 국제 법학자들은 찬성을 하고 국제 법을 모르는 생태학자는 반대를 한다. 우리정부는 일본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도 방과제를 만들고 주민이 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제발 일본 눈치 보지 말고 주권행사 해야 한다. 온 국민이 독도를 지키려고 행동하며 노력을 하자. 독도 이상훈

후원금 주신 분

서의택	부산시금정구청용동경동A	6,000원
박민균	부산시해운대구좌4동두산A	9,000원
허경임	부산금정구금샘로261	12,000원
서동우	부산시남구우암로2번길	10,000원
김광수	부산시진구개금2동○○주택	7,000원
방건연	부산시기장군일광면	40,000원
김대수	통천사 부산상임대표	50,000원

독도, 문제의 리스크 서한(처음 듣는 분 많을 것)

http://blog.naver.com/tslee599/220339797502

대한민국(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한국은 대일평화조약의 조인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도가 최종안에서 빠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정부는 '양유찬 주미 한국 대사'를 통해 '덜레스(미 국무성 고문)'에게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초안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한국 요청 사항

"일본은 안국과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그리고 과랑도를 포함한 일본의 한국에 대한 합병 이전, 한국의 일부였던 도서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그리고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자로 포기하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 한다."

★ 덜레스는 답변과 질문을 하였다.

"1905년 이전에 이 섬들이 한국 영토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본이 포기 할 한국 영토 조항에 이들의 명칭을 명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독도와 과랑도의 위치는 어디죠?"

★ 양유찬 대사는 대답을 하지 못했고 대신 한동욱 일등서기관이 답변하였다. "아마도 울릉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 한다" - 한국 측은 그 섬의 위치를 전혀 몰랐던 것이다...

★ 그 뒤, 미 국무성은 주미 한국 대사관에 독도와 과랑도에 대해 문의했다. 그런데 대사관 직원들이 "독



※ 린 러스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 대한민국의 영토를 인정 해 줄 수 있었던 인물이었지만 우리는 설명할 좋은 기회를 놓쳤다. (사진-위키백과 참조)

도는 울릉도 혹은 다케시마 가까이 있는 섬이라고 생각한다. 과랑도도 아마 그럴 것이다" - 1951년 8월 3일자 미 국무성 메모 참조 (신용하 편, 독도 영유권 자료의 탐구, p 383)

이런 상황에서 에치슨 국무장관은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었다. 아무래도 한국 대사관의 서툰 조치가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 1987년 8월 7일, 에치슨 국무장관이 덜레스 대사에게 보낸 서한

"지리학자뿐만 아니라 한국대사관에서도 아직 독도와 과랑도의 위치를 확인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방 우리(미 국무성)가 이들 섬들에 대한 정보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들 섬에 대한 한국 주권을 확실히 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들어 주기 어렵다" 이후, 수많은 자료들이 생성되었지만 대부분 일본의 영토가 인정된다는 내용이 오히려 더 많았다. 일본의 로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무지(無知)로 인해 독도와 과랑도가 아직도 대한민국 섬이라는 결론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전쟁으로 인해 부산 임시수도에 있었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덜레스와의 회담을 통해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능력이 그렇게도 없었을까???? 2015.04.23.(목) 우리의 부족한 영토, 역사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대한민국 독도_일본 논리의 종언 참조.

[출처] 독도, 문제의 리스크 서한(작성: 산정SanJung)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봐서 못하면?



독도는 우리 땅 1인 캠페인 APEC 기간 각국 정상과 각료, 언론인들에게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1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도사수연합회 소속 59살 이상훈씨는 오늘 정상회의장이 있는 동백섬 입구에서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1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부산 MBC [민성빈] 2005-11-16 좌



경찰이 독도 현수막을 현수막을 빼앗는 경찰 한국경찰 맞나? 독도를 어떻게 지킬래? 전날 16일 캠페인 17일 빼앗기다.



울산라이온스 독도종단 본회울산지회장과 기발



8월14일 광복70주년귀국선 재현 환영행사에서



8월14일 광복70주년 귀국선환영행사에 회원들



5월28일 독도시민연대 한, 일 영토교육 비교



5월28일독도시민연대 세미나에서 박신철위원장



2015.독도항우회 한마음대회 부산 회원 중 일부



2015.독도항우회 한마음대회 위덕대학교 지혜관 정수정화백 대형그림 중



2015.독도항우회 한마음대회 위덕대학 지혜관 독도항우 독도 파이팅



독도항우회 고문 박명재 의원 (뒷줄 우에서5번)



독도사수연합회 부산지회장 인천지회장



독도항우회 부산 회원들 절반만 모여 한컷

안녕하세요? 독도사수연합회 운영위원 김석순 입니다.



김석순 회장

평소 걸핏 하면 독도를 자기들것이라고 하는 일본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분노를 느끼면서 일면식이 있는 이상훈 회장님이 택시 기사를 하시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미처하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단연코 말이 필요없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현재 저는 가락 시 부녀회 회장 라이온스봉사 18년 정심라이온스감사를 맡고 있으며 불교표교 봉사단 부단장 등 기타 각계에서 봉사하며 되도록 진취적이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여성단체모임에서 대마도를 간적이 있는데 그날 가이드가 안내하는 설명 의하면 일제의 36년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이 되어 2차대전일본이 패망 후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하고 독도는 평화선을 선포해서 확실히 지켰다고 합니다. 그날 대마도에 갔을 때 곳곳에 일본의 간판 일본의 물건 일본의 잔재가 그 옛날 이 땅도 우리 땅 이었다고 생각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었고 일행도 다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한결 가치 애국하는 애국자요 이외로 어려운 환경 에서 열악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정부에서 더 큰 관심을 가져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는데 힘써주기를 바라면서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 많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자기잇속 당리당락에 신경 쓰는 것 조금은 독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며 모쪼록 독도를 지키기 위해 모인 이상훈 회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노고와 열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본인도 주변에 독도를 지키는데 홍보를 하면서 작으나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위원 김석순 올림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독도문제의 위기와 기회 6편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독도 영유권 도발은 말하자면, 새로 생긴 일본 내각관방실의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이 내 놓은 첫 번째의 작품이며, 용의주도하게 고안된 '전략적 공격'이다.

이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다음 단계로, 조만간 필요한 여건을 세밀히 조성시킨 다음에, "한국의 불법적인 독도 점거"를 항의하는 국제소송을 ICJ에 일방적으로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국제소송을 ICJ 등에 일방적으로 제소하기 위한 '필요한 여건'이란, 일본 정부가 음성적으로 일본내의 우익 단체 등을 유도, 촉발하여 독도 상륙을 시도 하게 하는 등 물리적인 긴장 상태(tension)를 야기하여, 이 문제에 유엔 안보리 등이 개입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사태에 이르기 전에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영토 정책은 앞서 지적한 한국 정부의 법적인 무지와 혼돈을 시급히 극복하고, 여러 가지 실사구시적인 과제들을 완결 시켜놓는 일이다.

즉 일본이 아직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제국주의적 영토 확장정책의 미망(迷妄)을 극복하지 못한 <<용납될 수 없는 정책>>,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는 국제사회의 일반적 인식과 여론을 확실히 해 두는 일이다. 가.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불법성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법적인 무효를 전제로 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불법성 한일 간 역사 인식의 심각한 괴리가 독도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한국 측의 전문가들도 사실 드물다. 그리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법적인 무효와 불법성의 이론적 근거를 설명하는 한국 측의 법적추론도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일본 정부의 공

식적 입장은 아직도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며, 2차 대전이 종결될 때까지 "일본이 한국인과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측의 입장은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았으며, "일본이 한국인과 한반도를 지배한 것은 법적 권원이 없는 군사적 지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국 현행 헌법의 법적 입장도 이러한 논리적 추론에 입각해 있다 『한일병합조약』이 적법, 유효한 것이 라면 일제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합법적 권원이 인정된다.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배제시키는 경우에도 배제되는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독도는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배제되지 않았다. (1951년 대일 강화조약의 당초 초안에는 독도가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의 목록에 특정되어 열거되어 있었으나 6차 초안 이후 이 열거 목록에서 탈락되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법적근거가 있게 된다. 그러나 『한일병합조약』이 적법, 유효한 것이 아니라면, 일제의 한반도(독도포함) 지배는 법적 권원이 없다. 일제의 한반도(독도 포함) 지배는 군사적 점령(belligerent occupation)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패전으로 한반도에 대한 일본 지배권을 배제시킬 때, 배제되는 영토의 범위는 명시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다. 즉 독도는 일본이 포기해야 할 도서로 명시적으로 특정되지 않아도 당연히 일본의 지배가 배제된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 땅이다. 한일간 역사 인식의 심각한 괴리가 독도 영토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논리적 관계를 지칭하는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본회 홈페이지에서 전부 볼수 있음>

독도주인들이 독도를 버리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독도의 주인들이다. 일본이 독도를 뺏으려 하는 것을 우리국민들 알고 있다. 독도 주변 바다 조업을 우리만 해야 한다. 그러나 조업을 하려면 일본에 신고를 하고 해야 한다. 공동수역이 되었기에 때문이다. 독도바다 절반을 빼앗긴 것이다. 그러나 뺏기면 안 된다는 마음만 있고 지키려는 노력은 부족하다. 일본이 독도를 가져가는 중이다. 독도주인 대다수가 가만있다. 독도를 버리는 것이냐? 아니냐? 우리 정책을 고쳐서 사람이 살고 하면 된다. 아래에 있는 청원서 내용을 정부가 하도록 만들면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본다. **함께 노력 합시다!** 010-6504-6510



일본은 독도를 빼앗기 위하여 일본 땅 근거 자료를 전시한 독도 자료실 (일본 독도박물관도 있습니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 명	주 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k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



고종황제 독도칙령 41호 제정 115주년 기념식

주최 : 독도사수연합회

후원 : 독도를 사랑하는 시민단체



일시 : 2015년 10월 25일(일요일) 14시 / 장소 : 부산초량정발장군동상 앞

애국단체, 독도단체, 시민, 유관단체, 참여단체는 공동주관으로 현수막에 기록할 예정입니다.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TEL : 051-3363-114 FAX : 051-3363-112. H 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1900년10월25일에 고종황제께서 울릉군수는 울릉본도와 죽도, 석도(독도)를 관할하라는 칙령41호를 제정 하시고 동월 27일에 칙령41호를 대한제국 관보 1716호를 통해서 반포하여 국제법적으로 대한제국 땅이 된 것입니다.일본이 독도 날 하나까? 2008년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에서는 우리는 일본 보다 먼저 우리 땅 된 고종황제독도칙령제정을 알리는 행사를 하자는 결의를 했으며 해마다. 탐골공원과 덕수궁. 국회의원회관. 부산 정발장군동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국민들이 독도칙령으로 우리 땅이 된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독도칙령기념식을 해야 합니다. 아직 “독도칙령기념일”이나 “독도 날”을 나라가 정한 일은 없고 언론이 독도칙령기념일에 독도 날이라고 보도해서 일반국민들은 나라가 독도 날을 정한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안용복 장군이 일본에서 우리 땅 확인 받은 날.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 간 날을 독도 날 하든지 하고 금년10월25일은 독도NGO포럼(독도시민단체대표자회의)이 하자는 “고종황제 독도칙령 115주년 기념식” 합시다. 진정 나라를 위한 길이 됩니다. (편집자 이상훈)

SBS [단독] 정부 산하기관 사이트에 '일본해' 표기

기사입력 2015.09.04 오후 8:51 박아름 기자(arm@sbs.co.kr)

<앵커> 국제 지도에 일본해로 잘못 표기된 걸 동해로 바꾸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까지 나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그런데 정작 정부 주무 부처 산하기관의 웹사이트엔 달갑지 않은 지명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한민족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만든 대국민 정보 사이트라고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옛집을 알려주는 지도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지명이 보입니다. 한반도 옆으로 보이는 동해에 일본해와 동해가 같이 쓰여 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 독도 위치를 찾아보니 '리앙크루 암초'라고 나옵니다. 해당 기관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직원 : 구글에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지도 플랫폼을 갖다 쓴 거예요. 저희는 문화적인 속성 정보만 얹은 건데 그게 일본해로 (표기)돼 있었다는 건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구글 지도는 한국 관에만 동해와 독도 표기를 하고 영어판에는 다른 표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판 지도가 웹사이트에 연동된 겁니다. 세계 주요 기관과 지도에서 동해와 독도 이름을 되찾기 위해 우리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해외동포들까지 나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가운데 '동해'와 '독도' 홍보를 주도적으로 맡아온 문화체육부는 정작 제 눈의 들보는 못 본 셈이 됐습니다. (영상편집 : 염석근) 박아름 기자(arm@sbs.co.kr)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침탈 부정"

이승재 기자 입력 : 2015.07.22 08:03수정 : 2015.07.22 09:00

올해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조금 나아지는가 싶던 한일 관계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11년째 계속되고 있는 이런 일본의 억지 주장에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불러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1일) 일본 내각회의를 통과한 2015년 방위백서입니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영유권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지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일본 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05년 고이즈미 정권 때 시작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11년째 되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또,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위협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중국이 예측하지 못한 사태를 가져올지 모르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남중국해 매립공사를 적시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선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무기 탑재 미사일의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확대를 위한 아베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 개정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와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노광일/외교부 대변인 : 일본 정부가 전후 70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도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스스로 알리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았지만 일본의 영토 도발이 계속되면서 풀리는 듯했던 한일 관계는 다시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소식지 21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본분회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이 모자랍니다. 사이트에 오셔서 인터넷 활동을 해 주시거나 회비를 내시거나 서명운동을 해주시는 것 힘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하시면 애국입니다. 일본이 뺏으려 하는 것을 알면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독도를 버리는 것. 마음으로는 못지킨다,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전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독도소식지를 보신 후 버리지 마시고 다른 분이 보시도록 다른 분께 전해 주십시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종황제 독도칙령 기념식 광고로 인해서 10여일 빨리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칙령기념식에 많이 오세요.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 후원하실분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가입원서

http://dokdomk.com (접수번호 : 독사연)

성명	생년월일 (주민번호앞자리)		성별	사진
연락처	이메일			
	자택전화			
주소	휴대전화			

본인은 독도사수연합회 회원으로 나라를 위하여 독도를 지키는데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가입원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성명 : (서명)

독도사수연합회 귀하

우편번호 : 611-828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43번길 12 부경빌딩 201호
TEL : 051-3363-114, FAX : 051-3363-112, HP : 010-6504-6510, ds5ean@naver.com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 독도사수연합회